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걷다
우연히 이런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보조견 리트리버



보조견 보더콜리



보조견 골든두들



주목!

리트리버, 보더콜리, 골든두들 외에도
다양한 견종이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의 보조견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 장애인 보조견표지로
확인이 가능해요!

보조견은 장애인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훈련도 하는데요!



훈련 중인 보조견들,
그저 귀여운 아기 강아지 같지만
튼튼한 예비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훈련 중이거나
활동 중인 경우,
어디든지 장애인과
함께 다닐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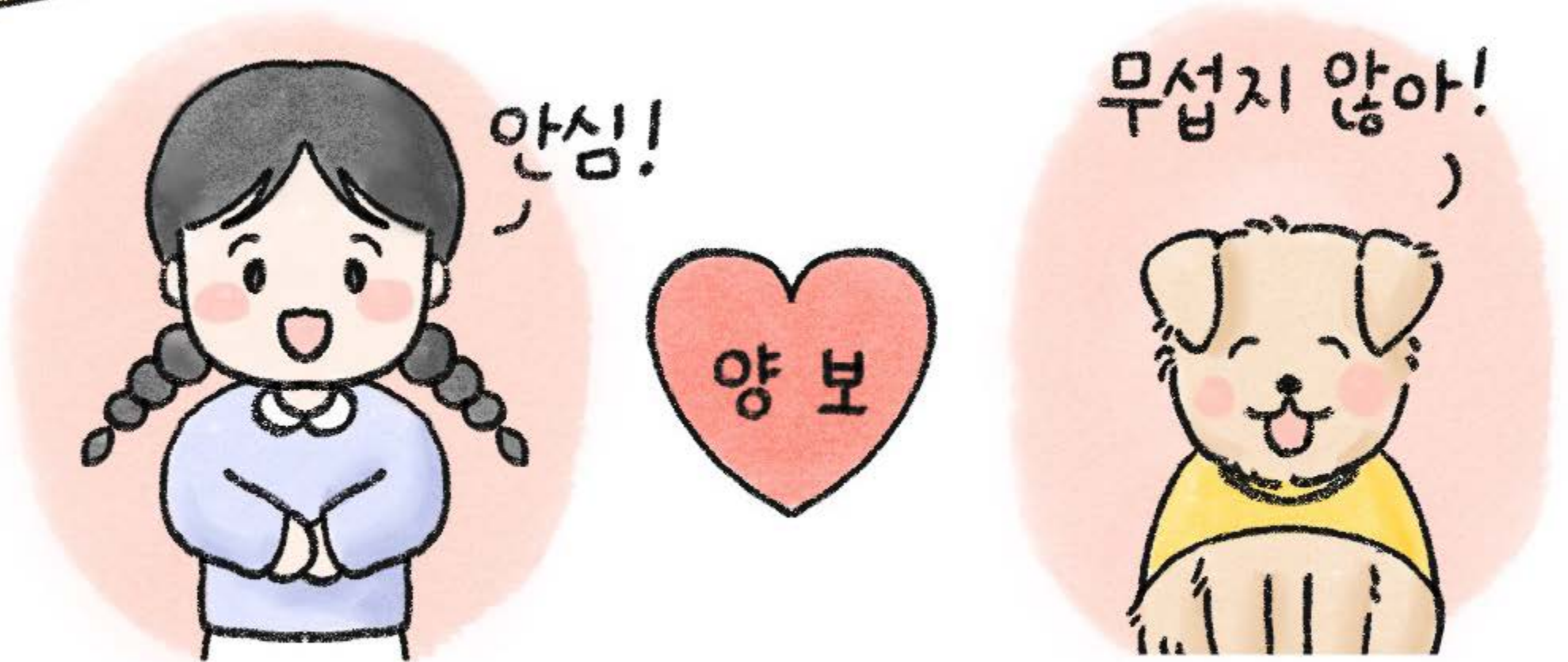


정당한 사유없이
공간 출입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장애인의 눈과 귀,
두 발이 되어주는
보조견은
막아선 안 됩니다.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해주세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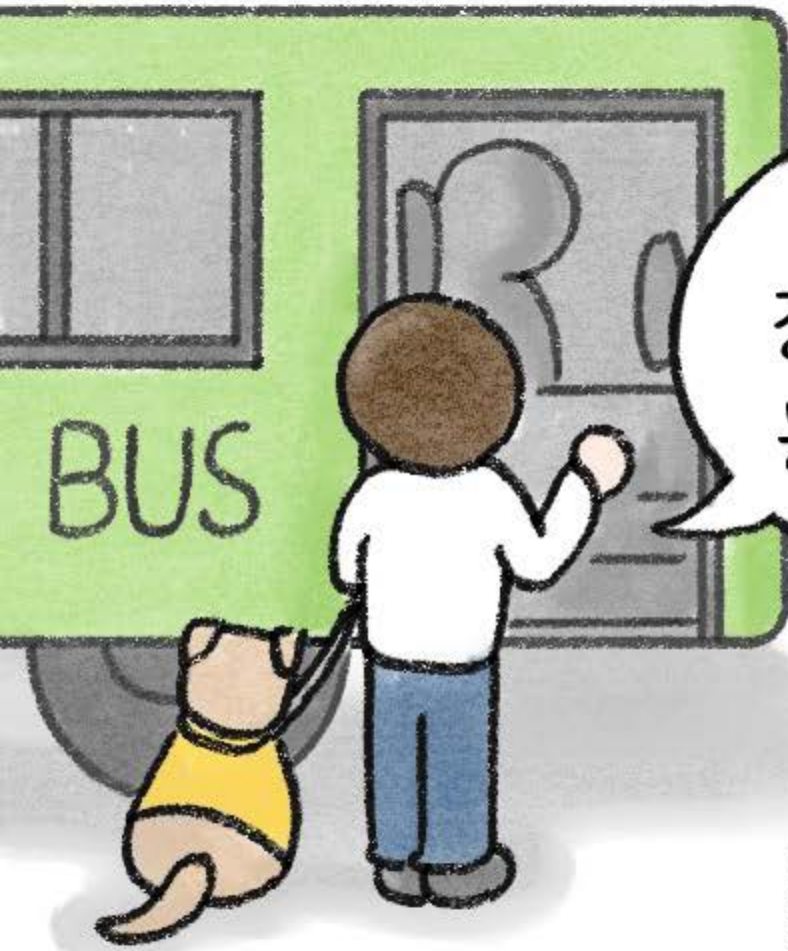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혹시 알려지가 있거나, 보조견을 무서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두는 등 조금씩 양보하며 맞춰갈 수 있어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다른 승객에게 미리 안내하고
앉으면 문제 없겠죠?



기사님!
장애인 보조견과
동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안내하고 앉으면
OK!

배려
감사해요~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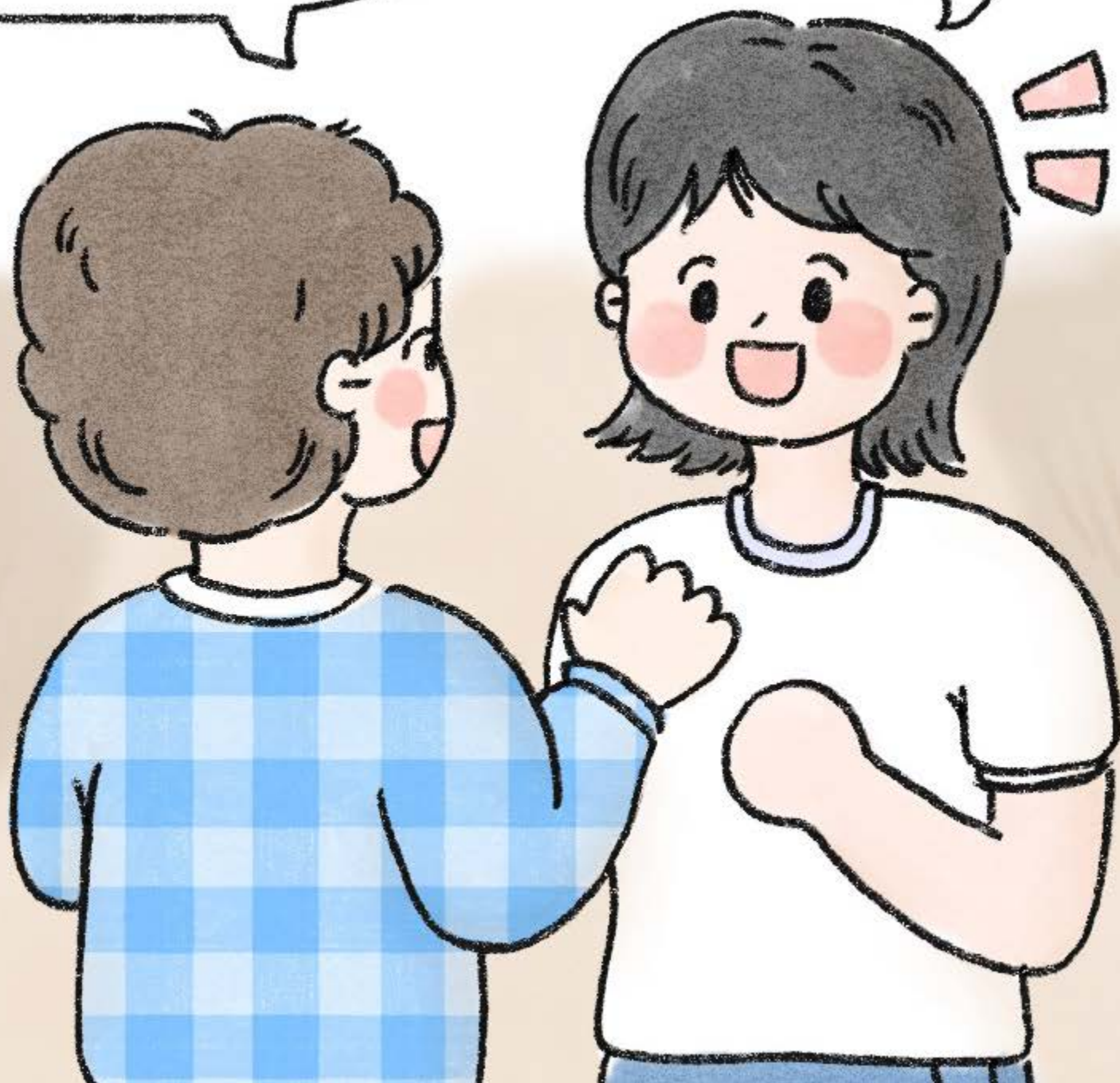
괜찮아요!~



숙박업소 또한 보조건 출입이 가능하기에,
이 점을 알려주세요!

보조건은
단순 반려건이 아닌,
장애인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에요.
따라서 보조건은 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활동중인
장애인 보조건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거절 대신 배려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조용히 이용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 불가?

그렇지 않아요. 보조견은 뛰거나
짖지 않도록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공공장소 입구에 보조견 동반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 장애인 보조견을 만나다면? >



보조견을 부르거나 만지지 마세요



음식이나 간식을 주지 마세요



사진을 찍지 마세요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함께 잘 지내자구!

지켜줄거지?

